

관광산업 기지개... 질적성장 신호탄?

올해 관광객 작년 비 6.6%↑... 1520만명 예상
관광정책 전환 영향 3년만에 1500만대 재진입
관광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재도약 이끌어

제주 관광산업이 올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면서 2020년에 다시 비상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까지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총 관광객은 1502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6.6% 증가했다. 이중 내국인 관광객은 1332만명, 외국인 관광객은 170만명으로 각각 3.4%, 4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역대 최고치인 1585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 수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1520여만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관광은 2017년 3월 이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2018년에는 내국인 관광객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침체를 겪어왔다. 2017년 1475만명(내국인 1352만명,

외국인 123만명), 2018년 1431만명(내국 1309만명, 외국 122만명)으로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질적 성장에 근간을 둔 정책 등에 힘입어 3년만에 1500만명 시대로 재진입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는 개별여행 확대, 저가관광 개선 및 시장 다변화를 핵심과제로 정해 온라인 중심으로 마케팅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송객수수료 제도 개선, 시장별(도약시장, 관심시장, 신흥시장 등) 전략적 마케팅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1차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실물경제동향에 따르

면 "최근 제주경제는 소비가 관광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관광조수입(잠정) 6조 5390억원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의 67% 정도가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발생했다. 내년 발표될 2019년 관광조수입은 연도별 증감상황과 3차산업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할 때 7조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500만명 시대 재진입과 관련 양적 성장 못지 않게 질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주경제를 견인해 나간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관광예산 513억원을 조기투입해 관광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책 수립과 마케팅뿐만 아니라 관광시장 위기관리 및 도민 체감도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공동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생산·소비자 상생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우수한 감귤 공급과 소비촉진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감귤 많이 드시고 농가 도와주세요”

26일 국회서 소비촉진 시식회
감귤 생산자·소비자 상생협약
우수감귤 공급-소비촉진 약속

감귤가격 하락으로 제주 감귤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 및 생산자·소비자 상생협약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와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 강창일(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농협제주지역본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날 상생협약식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감귤농가에 힘을 실어주고자 위성곤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올해 감귤은 예년보다 출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주감귤 농가들은 투입된 생산비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와 농협, 제주도가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격리에 나선 데 이어 정부도 국비를 지원해 힘을 보태고 있지만 감귤 가격은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

범)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각각 생산자로서 우수한 감귤을 공급하고, 소비자로서 감귤 소비촉진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감귤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됐으며, 송영길, 김한정, 서형수, 김영진, 맹성규 국회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차관보, 제주감귤농협 송창구 조합장 등이 자리를 함께 감귤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상생협약이 소비자들에게는 감귤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고, 제주지역의 감귤농가에는 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제주 이주열풍 시나브로 ‘시들’

유입 순이동 인구 2년전 비해 1/10 수준에 그쳐
11월 104명 증가 고작... 올해 3000명선 머물듯

연말 기준, 제주를 찾는 순이동 인구 규모가 2년 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월평균 1000명을 넘던 순이동 인구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며 최근에는 100명선으로 떨어지며 이주열풍도 시들어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제주에 전입한 인구는 7121명이고, 전출자는 7017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104명에 그쳤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순이동 인구 259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또한 2017년 11월의 1124명에 견준다면 9.3%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최근 몇 년 간 순이동 인구가 월평균 1000명을 넘던 것과는 달리 2017년 5월 이후부터 1000명대가 붕괴한 이래 1년 6개월째 소폭의 오름세에 그치고 있다.

제주의 이주열풍이 식으면서 그 매력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제주 순이동 인구 추이를 보면 확연하다. 제주유입 순이동 인구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으로 1만명을 돌파하며 제주인구 증가세를 견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885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그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월 누계 순이동 인구는 3000명선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유입 둔화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속화와 맞물려 제주사회의 '인구 절벽'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0월 기준 올 누계 출생아 수는 3806명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47명보다 5.9% 감소했다.

도내 결혼 인구도 점차 줄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당분간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2년 만에 다시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적용
이용자에 1만5840원 감면 혜택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21년까지 2년간 적용되며,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은 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이며, 감면시 약 237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개세 감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실득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00% 부과되던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1만5840원이 감면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 시장 공략 등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주도 또한 골프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했다. 2018년 1월 1일을 기해 감면제도가 종료됐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정보” "아맹 초자봐도 어실땀"

제주도 공공구매 지원단

☎ 064-723-4111

공무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사전마케팅!!!

매칭

플젠마케팅!!!

사회적경제기업

제주도 공공구매 지원단은?
제주도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4개조직이 연대하여 공공구매 활성화 위탁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담당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 인기 업종

사무용품, A4용지, 프린트 잉크, 사무기기 임대
인쇄, 판촉물, 디자인 # 홍보영상제작,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가공·신선식품, 케이터링, 도시락 # 행사 기획, 전시, 세미나, 축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새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